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April 2014 vol.109

이달의 이슈

국내 창업생태계 현황

손영훈

창업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이윤석

생생리포트

현대인의 새로운 음식문화 '푸드트럭'

서울경제분석센터

인포그래픽스

보증기관을 통한 자금 대출 시

소기업·소상공인의 이자율은?

서울경제분석센터

경제동향

생산/소비/고용/물가

부동산/금융/수출입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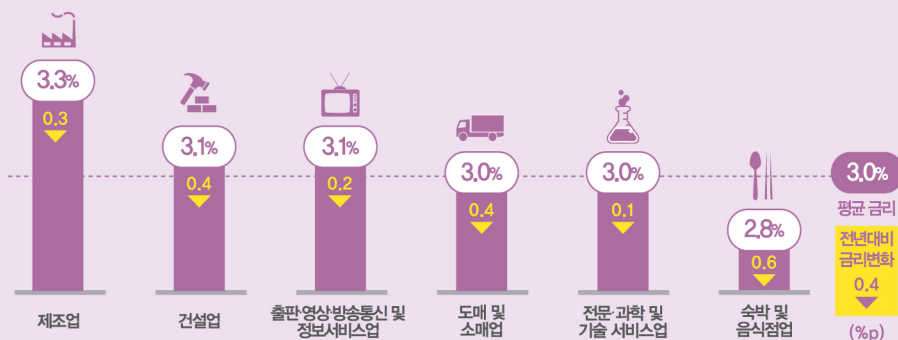
통계표

4

보증기관을 통한 자금 대출 시 소기업·소상공인의 이자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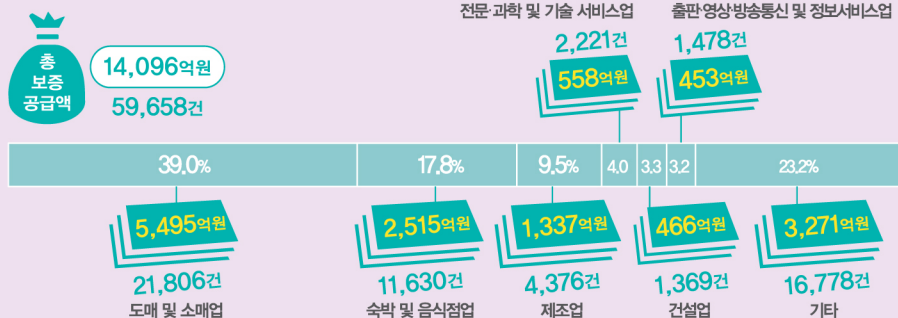
전 업종 평균 대출 이자율은 3.0%이며, 예금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1.8%p 낮음
연간 보증공급액은 14,096억원이며, 59,658건을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한 자금 대출 시 이자율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 (한국은행 2014.02 자료) 4.8%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연간 보증지원 현황



이달의 이슈 3 **국내 창업생태계 현황**
손영훈(KT 경제경영연구소)

14 **창업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이윤석(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팀장)

생생리포트 23 **현대인의 새로운 음식문화 '푸드트럭'**
박희석(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센터장)
장윤선(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인포그래픽스 37 **보증기관을 통한 자금 대출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이자율은?**
박희석(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센터장)
장윤선(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경제동향 43 **요 약**
45 **생 산**
47 **소 비**
48 **고 용**
51 **물 가**
52 **부동산**
54 **금 융**
62 **수출입**
곽지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이소은(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국내 창업생태계 현황

손영훈*

KT 경제경영연구소
changeworld@kt.com



새로운 성공 방정식, 스타트업

세계경제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2013년에 9월에 발표한 '2014 기술선도기업(Technology Pioneers)*'에 선정된 기업 중 하나인 에어비앤비(www.airbnb.co.kr)는 온라인 숙박 공유 사이트이다. 현재 에어비앤비의 직원 수는 600명이 되지만 처음에는 조 게비아라는 웹디자이너가 남는 방을 인터넷을 통해 중개하는 아이디어에 착안해 만든 스타트업이었다. 2008년에 창업한 에어비앤비는 2009년 1~3월 동안 Y 컴비네이터라는 인큐베이터를 통해 기술, 마케팅, 재무 등의 보육을 받고 2만 달러(한화 약 2천백만원)의 시드머니를 투자 받았는데 현재 기업 가치는 100억 달러**(한화 약 10조 원)에 이른다. 실리콘 밸리라는 창업생태계에서 창의적인 창업자의 좋은 아이디어가 우수한 인큐베이터와 투자를 만나 2만 달러가 100억 달러가 되는 성공을 만든 것이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현) KT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틈새에서 Major로!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2013), 성공적인 창업, 특별한 비결이 있는가(2013)

* 전 세계 벤처기업 중 기술력, 잠재적 발전 가능성, 인류에 대한 기여도가 큰 기업 선정

** WSJ, "Airbnb Is in Advanced Talks to Raise Funds at a \$10 Billion Valuation", 2014.03.21

1. 창업생태계 구성요소

스타트업은 인큐베이터의 보육과 인베스터의 투자를 통해 지식/기술 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실패하여 EXIT 또는 재도전하게 된다. 미 하버드대 로렌 게리 교수에 따르면 실리콘밸리는 실패를 ‘경험과 자산’으로 인식하며, 성공한 벤처의 평균 실패 횟수는 2.8회에 이른다고 한다.* 국내의 경우 창업에서 실패하면 재기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 창업 도전 기회는 1번을 넘기기 힘들었다. 최근 들어 선데이토즈, 앱디스코, 엔써즈 등 실패를 경험으로 재도전 하여 성공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선배 창업자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벤처1세대 멘토링센터를 2013년 9월에 개관했고, 민간과 함께 실패기업인 재도전펀드인 1,500억 원 규모의 재기펀드도 운영할 예정이다. 성공한 스타트업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창업생태계에 인큐베이터와 인베스터로 다시 참가할 수도 있다. 권도균 이니시스, 이재웅 다음 창업자, 장병규 네오위즈 창업자 등은 2010년 프라이머를 설립하여 엑셀러레이터와 엔젤로서 후배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의 주인공: 스타트업

스타트업이란 용어는 닷컴 버블(1995~2000) 이후 등장했는데, 당시에는 닷컴 회사들을 치칭하는 의미로 쓰였다. 오늘날에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작은 규모의 회사 및 창업자를 말한다. ‘린 스타트업’의 저자 에릭 리스는 스타트업을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최근 4~5년간에는 스마트혁명 등 새로운 시대적인 변화와 맞물려서 창업 열풍이 불어오면서 스타트업을 비롯한 신규 벤처기업이 1만개 이상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 벤처기업 수는 2.9만개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11년 4월에는 정부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1인 창조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2012년 기준으로 약 29.6만개의 1인 창조기업이 있다. 창조경제 기조에 맞게 1인 창조기업에 대한 2014년 예산은 2013년 보다 늘어났다. 관할부처인 중소기업청은 2014년 1인 창조기

* 정책브리핑, ‘벤처1세대의 ‘성공과 실패’ 모두 배운다’, 2013.06.18

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2013년보다 25% 증액된 352억 원으로 배정하였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50% 증액된 150억 원에 배정하였다.

스타트업 보육: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는 신생아를 키우듯 갓 창업한 기업이나 예비 창업가의 성장을 돕는다. 창업보육, 공간, 시드머니, 노하우, 멘토링, 창업가 네트워킹 등을 제공하고 인베스터의 투자유치를 도와준다.

인큐베이터의 유형은 운영주체에 따라 정부운영, 민간운영, 기업운영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첫 인큐베이터인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가 설립된 1993년부터 2009년까지는 정부운영형이 전통적인 인큐베이터였다. 이후 스마트폰이 본격 도입되어 스타트업이 증가한 2010년부터 민간 및 기업 운영 인큐베이터가 생겨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변화되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정부운영 인큐베이터에는 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이 있는데 비영리형이다. 민간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디캠프, 앱센터운동본부의 K스타트업 등 비영리재단을 중심으로 한 인큐베이터와 프라이머, 스파크랩 등 창업가 출신이 운영하는 인큐베이터가 있다. 기업이 운영하는 인큐베이터에는 KT의 에코노베이션센터, SK planet의 상생혁신센터, 네오위즈의 네오플라이 등이 있다. 특히 민간에서 운영되는 인큐베이터는 대다수가 엑셀러레이터로 정부운영, 기업운영과 구분된다. 엑셀러레이터는 인큐베이터의 한 종류로 기존 인큐베이터가 단순 지원, 투자에 그쳤던 반면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자를 선별해 3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 보육한다. 실리콘밸리의 Y컴비네이터, 500스타트업스 등이 대표적이다.

스타트업 투자: 인베스터

인베스터는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펀드를 조성하여 다른 인베스터 및 인큐베이터에 위탁한다. 유형에 따라 정부, 벤처캐피탈, 엔젤, 민간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직접투자를 하지 않고 민간(기업)과 함께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운용사에 위탁한다. 벤처캐피탈은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엔젤은 개인 투자자나 투자그룹을 말하는데 1920년대 초 미국 브로드웨이에서는 공연

을 후원해주는 사람들을 천사(angel)라 칭했다. 국내의 경우 닷컴 열풍이 일어났던 2000년대 초 IT분야에서 창업한 세대들과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장병규 본엔젤스 대표, 노정석 아블라컴퍼니 대표 등 벤처 1세대가 투자와 창업보육을 겸비한 엔젤이 되어 창업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다. 2011년 기준 국내 엔젤투자 규모는 296억 원으로 2000년 5,493억 원 대비 18분의 1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2011년 기준 엔젤 투자 규모는 225억 달러(한화 약 24조3천7백억 원)로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 291억 달러(한화 약 31조5천2백억 원)와 비슷하나 국내의 경우 엔젤투자 규모는 벤처캐피탈 규모의 2%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엔젤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5천만 원까지 엔젤 투자 소득공제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넓히기로 했다.

민간에서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아산나눔재단 등이 인큐베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2013

2. 국내외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

전통적인 정부 지원 창업지원 센터: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BI, www.bi.go.kr)는 1993년 정부 직접 운영으로 일부 지역에 준공되었는데 1998년부터 정부지원 형태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2014년 4월 기준 대학, 연구소, 지자체, 공공법인, 민간법인 형태로 전국에 277개 센터가 있다. 정부는 공공이나 민간단체에서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할 경우 소요자금을 지원해주고 운영 평가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해주며 실질적 운영은 개별 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입주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공간과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타 인큐베이터에 비해 입주기간(최대 5년)이 길다.

※ 서울시의 창업보육센터와 프로그램

2014년 4월 기준 서울시 내 창업 보육센터는 대학, 연구소, 지자체, 공공법인, 민간법인 등을 모두 합쳐 37곳이다. 그 중 대표적인 창업보육센터와 프로그램은 서울산업진흥원의 서울시 청년창업센터와 서울시 창업스쿨이다.

서울시 청년창업센터(2030.seoul.kr)는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3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과 인프라가 부족한 청년 1000~1300명을 매년 선발해 창업자금과 공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39세의 예비 청년창업가 및 창업 1년 미만 초기기업이다. 지원자들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합격하게 되면 센터에 입주해 창업 활동비와 창업 공간, 창업 교육, 컨설팅, 금융기관과의 연계 보증,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 받는다.

서울시 창업스쿨(www.school.seoul.kr)은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의 창업 실전 교육을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었는데, 체계적인 창업 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개월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에 대한 기초와 등의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공 및 실패사례, 창업현장탐방 및 모의창업체험 등의 실전과정도 함께 참여 할 수 있다.

입소형 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start.sbc.or.kr)는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안산, 호남, 대구 경북, 부산경남 지역의 중소기업연수원 4곳에 위치하고 있다. 만39세 이하의 창업가 및 예비창업가가 사관학교형으로 입소 또는 준입소하여 1년 동안 제품 기획에서 기술 개발, 디자인·설계,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양산까지 창업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는다. 수업료는 전액 무료이며, 제품 개발·시제품 제작에 이어 양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창업보육센터가 이미 창업한 기업이 입주하는 것에 반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예비 창업가가 기업을 설립하기 전에 창업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ICT 분야 특히 SW 관련 스타트업 비중이 큰 엑셀러레이터에 비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가가 입소해 있다.

대학과 창업의 연계: 창업선도대학

창업선도대학은 대학가의 청년창업을 활성화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별 한국형 실리콘 밸리 육성을 목표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2014년 기준 전국 21개 대학이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있다. 창업선도대학은 해당 대학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예비창업가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대학생을 위해 창업 강좌를 개설하고 창업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전국 창업 동아리 수는 1,833개(2만 2463명)로 2012년 1,222개(1만8027명)에 대비 50%로 증가했고 재학생 중 대학생 창업 숫자는 407명으로, 전년(221명)대비 84%나 급증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창업선도대학을 2013년 18곳에서 2014년 21곳으로 확대 하였다. 또한 2013년 6월부터 뉴-스타트업 플랜을 가동하여 타 창업사업화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학교별 사정에 맞게 전용 창업공간, 150시간 이상의 창업교육, 1:1 전담 멘토링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창업 생태계 허브 구축: 디캠프

디캠프(www.dcamp.kr)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2013년 3월에 개관했다. 창업 생태계 허브 구축이 목표인 만큼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디캠프는 개관 전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매년 개최하는 축제인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에 스타트업 7팀을 이끌고 스타트업 네트워크 파티를 기획하여 전세계 개발자, 투자자를 초청하기도 했다. 입주 기

업들도 청년창업사관학교, K스타트업 등 타 인큐베이터 출신으로 다양한 기관과 제휴를 진행 중이다. 디캠프 내부는 입주팀 사무실외에도 80여개의 이동식 테이블이 비치되어 예비 창업가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는데 하루 평균 300여명의 예비창업가, 투자자가 디캠프를 방문하고 있다. 디캠프가 국내 최초의 엑셀러레이터는 아니지만 디캠프에 대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로 Y컴비네이터 등 실리콘 벨리의 성공적인 엑셀러레이터의 우수성과 국내 엑셀러레이터 도입의 중요성이 제고 되었다.

해외진출 목표: K스타트업

K스타트업(kstartup.com)은 국내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앱센터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터로 2012년 11월에 1기 10개 팀을 모집했고 2013년 7월에 2기를 모집했다. Google for Entrepreneurs가 운영비 전반을 지원하고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SK플래닛이 투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K스타트업은 10개 기업을 선정해 3개월간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도움(멘토링, 기술 지원, 사무실 제공, 법률·세무, 특허 컨설팅 등)을 준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SK플래닛은 선정 기업마다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적은 지분을 취득한다.

창업가 출신 운영: 스파크랩, 프라이머

스파크랩(www.sparklabs.co.kr)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회사의 대표들이 2012년 8월 국내에 설립한 회사다. 스파크랩은 스타트업에 2,700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최대 6%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3개월간 해외 각국의 멘토 80여 명이 노하우와 인맥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돕는다. 2013년 3월 데모데이 이후 입주 기업인 미미박스, 위플래닛, 노리 등 3곳이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150만달러(한화 17억원)가량을 투자 받았고 스파크랩은 2013년 5월에 아산나눔재단으로부터 5억원을 투자 받기도 했다.

프라이머(www.primr.kr)는 창업자 출신 대표 5명이 창업가 후배를 기르기 위해 2010년 공동 출자한 회사다. 프라이머는 기존에 있던 업체를 발굴해서 데뷔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조차 되어 있지 않은 초기 업체를 찾아 기업당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을 투자하고 경영 노하우를 전수한다. 프라이머 출신 스타트업으로는 온오프믹스, 스타일쉐어, 애드투페이퍼, 큐블릭, 핀포스터 등이 있다.

가장 성공적인 엑셀러레이터: Y컴비네이터

Y컴비네이터(www.ycombinator.com)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이자 국내 엑셀러레이터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회사이다. 설립자인 폴 그레이엄은 본인이 창업한 회사 바이웹을 야후에 매각한 경험이 있는 성공한 창업가 출신이다. 2005년 설립된 Y컴비네이터는 새로운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창업자를 뽑아 지분취득을 조건으로 1만~2만 달러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3개월 동안 집중적인 훈련을 시킨 후 입주 4개월에 투자자를 초대해 데모데이(사업 발표회)를 갖는 집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졸업기업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인 드롭박스(기업가치 100억 달러*)와 앞에서 언급한 에어비앤비이다. Y컴비네이터는 2005년부터 약 550여개의 스타트업을 보육하고 투자하였다. 2012년 기준으로 투자한 상위 172개 기업의 가치는 778억달러(한화 약 9조원)에 달한다.

Y컴비네이터의 성공비결은 인재선발, 속도감 있는 프로그램, 막강한 네트워크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Y컴비네이터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은 50대 1에 달하지만 인터뷰 시간은 10분에 불과한데 창업 경험이 풍부한 Y컴비네이터 운영진이 지원자의 명확한 사업 구상과 열정을 보고 선발하는 것이다. 둘째, 이렇게 선발된 인원들은 3주내에 시제품을 만들어 내야하며 4개월에는 데모데이에서 투자자를 유치해야 할 만큼 빠른 속도의 성장이 요구된다. 셋째, 페이스북 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비공식적으로 Y컴비네이터에서 강연을 할 만큼 수준급 멘토들이 예비 창업가를 위해서 경험담을 알려주고 아이디어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 또한 Y컴비네이터를 졸업한 창업자들은 1,100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모두 졸업과 함께 Y컴비네이터가 운영하는 내부 페이스북에 가입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성공한 졸업생이 EXIT 후 와이컴비네이터 운영진으로 참가하는가 하면 멘토로 활동하기도 한다.

정부 운영 창업지원 센터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

최근 창조경제 실행이 본격화 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창업지원센터에도 큰 변화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학교기관 중심의 창업지원센터가 갖는 ‘관리형’ 운영형태의 한계를 벗어나 앞서 설명한 민간의 우수한 시스템을 적극 수용한

* Bloomberg, "Dropbox Value Said to Be \$10 Billion in BlackRock Funding", 2014.01.18

‘개방형’ 창업 생태계 구현을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정책과 자금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의 범위 확장, 아이디어를 가진 전 국민 모두가 창업할 수 있는 계층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은 창조경제포털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스마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검토와 멘토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 창업 관련 행사나 지원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출자기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역 대학과 연구소 및 기업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2014년 3월 대전에 첫 센터가 개소되었고 정부는 향후 17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무한상상실(www.ideaall.net)은 일반 국민이 생활공간에서 손쉽게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2014년 4월 기준 전국 7개 도서관, 과학관, 우체국,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전국 227개 시·군·구 당 1개소 이상 구축할 예정이다.

드림엔터(www.dreamenter.or.kr)는 협업, 캠프, 세미나 등 예비창업가들의 네트워킹과 교육, 멘토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2014년 2월 개관하였다.

예비창업가는 센터 내 카페, 멘토링룸, 컨퍼런스 홀, 회의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전문가의 멘토링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 센터(www.smicenter.or.kr)는 스마트TV 분야의 글로벌 앱 벤처를 육성하기 위해 2014년 4월 개설되었다. TV 앱 개발자들을 위해 앱 개발공간, 교육장, 테스트베드 등을 지원해주고 앱 검증, 등록 등 기술지원도 해준다. 또한 우수 앱 아이디어에 대해 개발비와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해준다.

3. 시사점

국내 한계를 넘어 글로벌로

국내 스타트업 창업생태계는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창업 선진국인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국내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의 한계점은 크게 창업자 pool 부족과 국내 내수시장 한계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청년들의 창업을 희망하는 창업선호도는 한 자릿수(5~7%)*에 불과하고 이전에 창업해서 성공한 선배들도 손에 꼽을 만큼 적다. 그만큼 우수한 인재가 창업 대신 안정적인 취업을 한다는 것이고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노하우를 전수해주거나 투자해줄 경험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창업자 pool이 적으니 정부나 벤처캐피탈에서도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찾기가 어렵다. 또한 국내 내수시장은 이미 기존 기업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 국내 앱 시장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유료 콘텐츠 인식, 모방앱, 플랫폼 독점 등으로 인해 성과를 내기 힘들다. 그래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을 노려야 하는데 국내가 곧 글로벌인 미국의 스타트업에 비해서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창조경제를 국정 기조로 한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도 증가하고 있고 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의 활동도 많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모바일 등 ICT 분야에서 큰 비용 없이 창업이 가능해져 스타트업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창업 동아리, 대학교 창업 강좌 등 이전보다는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환경이 조성되어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Start Small!

국내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창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즉 우수한 인재가 창업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창업이라 하면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들이어서 실패하면 완전히 끝이라는 인식이 있다. 질 좋은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작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Y컴비네이터와 같은 미국 엑셀러레이터에서 창업가들은 초기 1~2만 달러의 작은 금액만을 투자 받으며 실패하더라도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 오히려 실패 경험을 인정해 준다. 단, 창업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Brief No.24 '청년 여성들의 구직 창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 2013.09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수한 인재란 창업에 대한 열정과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눈으로 선발된 우수한 인재들이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창업지원은 구체적인 목적이 중요

정부 지원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져야 하고 판을 만들어준 다음에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야 한다. 요즈마 펀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표가 뚜렷하고 벤처캐피탈들의 학습과 참여를 유도했으며 관료적인 절차보다는 매니저의 전문적 역량을 중시하고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미래창조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부 여러 부처에서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목표 없이 정책적인 방향으로만 운영된다면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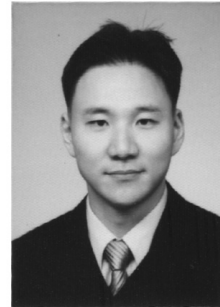
또한 정부는 창업 지원을 양적 측면이 아닌 질적 측면으로 고려해야 한다. 창업 활성화가 결코 취업난을 대체할 수는 없다. 오히려 소수의 역량 있는 창업가가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 최근 정부가 창조경제타운을 비롯하여 창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민관협력을 일원화,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의의가 있다.

창업 문화 조성

정부나 민간의 인큐베이터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은 창업자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주는 ‘판’이 되는 것이다. 행정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큐베이터가 창업자들만의 준거집단, 커뮤니티가 되어 스타트업, 멘토, 투자자 등이 공동체 안에서 자생적으로 뭉쳐지고 연결되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입시학원이나 과외가 명문대 입학을 도와줄 순 있어도 노벨상 수상자를 만들어 줄 수는 없듯이 일방적인 주입식 지원으로 글로벌 기업을 만들 수는 없다. 인큐베이터는 창업자를 관리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창업자는 정해진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인큐베이터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문화가 형성되면 창업자는 인큐베이터를 졸업하여 성공한 이후에도 멘토, 투자자로 다시 참여하게 되고 생태계는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 한국국제경제학회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2012

창업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이윤석*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팀장

phil@koef.or.kr

1. 창업교육 정책과 지원사업

성장 중심의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부딪히고 ‘고용 없는 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창의성과 융합이 강조되는 ‘창조경제’를 국정 키워드로 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내세우고 있다.

IT와 융합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적 기술개발, 국내와 글로벌 신규 시장 창출, 규제 개혁 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창조경제 실현주체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다. 창업에 관한 정책의 흐름을 보면, 2013년 5월 14개 국정과제 가운데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시켰고,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5월)과 ‘창조경제 실현계획’(6월)을 연이어 발표했다. 8월에는 미래부와 교육부 등 9개 부처가 공동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을 발표하여 ‘상상·도전·창업’ 문화 및 ‘학과·스펙·국경초월’ 문화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창의인재가 가져야 할 핵심역량을 제고하는 토대를 마련했는데, 전략과 추진과제로 중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팀장
-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사업(2012~현재) 등

등 기술창업교육 강화를 통한 기업가정신 고취와 대학 창업활성화로 학생의 도전역량 제고를 통한 ‘창업 친화형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을 내세웠다. 곧이어 9월에는 미래부·교육부·중기청이 공동으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 준비된 창업인재 양성을 위한 실행에 나서고 있다.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은 ‘창업 친화적 대학 교육제도 마련’, ‘대학생 창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 ‘지방대학 여건 및 창업 인식 개선’의 3대 전략과 이를 위한 8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3월 ‘창업 친화적 학사제제도 운영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 매뉴얼에는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창업휴학제의 조기정착 및 활용방법,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창업 대체학점제의 운영방법, 각 대학의 특성화된 창업 강좌를 타 대학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학점 교류제 등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져 있다. 아울러, 창업경험을 가진 직원과 이런 직원을 채용한 기업의 사례를 정리한 ‘기업인재! 창업경험자를 주목하라’를 배포하여 창업교육이 창업을 위한 과정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 뿐 아니라,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처별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내놓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기업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아카데미’,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쿨’,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선도대학’ 등 초중고부터 시니어 계층까지 전주기에 걸친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8년 고려대에서 시작된 ‘캠퍼스 CEO’를 서울시 내 10여개 대학으로 확대하여 지원했으며, 교육부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을 통해 각 대학별로 창업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대학 창업교육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 기업가정신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출연 연구원, 대학(원)생, 산업체 종사자 등을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을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은 15개로 시작하여 올해는 21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지원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은 61개에서 67개로 늘어날 예정이고, 미래부는 올해부터 카이스트 등 특성화 대학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2. 창업교육 국내외 현황

지난 해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2013년 대학산학협력백서에 따르면 2011년 전국 대학교 창업 강좌 수는 총 2,582개(일반대 1,950개, 전문대 632개)이며, 153,258명(일반대 131,002명, 전문대 22,256명)의 학생이 창업 강좌를 수강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 대학생 수를 290만 명으로 볼 때, 약 4.5% 정도에 불과하다. 작년에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실시한 ‘대학 창업인프라 실태조사’ 결과, 대학 창업동아리 수가 1,222개에서 1,833개로 50% 증가했고, 창업동아리 학생 수도 18,027명에서 22,463명으로 25% 가량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에 비례해서 양적으로 더 많은 강좌가 필요한 상황이다.

창업교육의 질적인 부분에서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2013년 산학협력선도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의 창업 강좌 수강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창업 강좌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70.34점으로 전년에 비해서 소폭(0.22점) 증가했지만, 여전히 ‘수우미양가’로 보면 ‘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창업교육의 효과, 창업 강좌, 창업교육자, 교수법, 교육환경의 5개 부문 중 교수법과 교육환경 등이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어, 체계적인 교수법과 교육환경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계획서 작성, 모의창업, 시제품 개발 등 실습 위주로 진행되어야 하는 창업 강좌의 특성 상 실습과목이 충분해야 하지만, 아직은 이론 강좌가 더 많이 개설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런 노력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도 비즈쿨 등 초중고를 위한 창업교육이 있지만, 대체로 대학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한편,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창업교육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여 사회 전반의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고 창업인재를 적극 육성 중이다.

구 분	창업관련 교육 운영현황
미국	○ 연방정부의 중기청, 상무성 등이 다양한 창업교육을 지원, 18개 주정부가 창업교육 지원 법률을 제정
유럽	○ 대다수 EU 국가들은 중·고교에서부터 기업가정신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 - (영국) 15~19세 학교 90%가 기업가정신 교육 채택, 교사용 기업가정신 교육 온라인 툴 개발 추진 - (스페인) 중소기업청 교재 개발 배포, 중학생에게 기업가정신 교육 필수과목 채택 추진 - (스웨덴) 기업가정신 경제교육 반영, 교사용 기업가정신 사례 발굴 및 교재 보급
이스라엘	○ 테크니온 공대, 히브리대 등 이스라엘 대학을 창업의 산실로 삼고 연구결과물의 상업화와 학생창업을 적극 지원
일본	○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기업가정신 교육 실시

* 자료 : 창업교육 5개년 계획(교육부 등, 2013) 및 ‘기업가정신’ (한국경제연구원, 2013) 자료 재구성

3.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이런 현황에서 창업교육의 보완 및 개선사항을 찾아보면, 먼저 창업교육을 실시할 대상을 대학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초·중고 및 대학, 일반인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전주기적 창업교육을 통해 어려서부터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을 갖추도록 하여 실제로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해서도 조직 내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인재들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창업선도대학이나 산학협력선도대학, 캠퍼스 CEO 지원사업 선정대학 등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창업교육을 전 대학으로 확산하고, 초·중고교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일반인 대상으로 여성, 군인, 시니어, 장애인, 국내 체류 외국인 등 세분화한 대상별 창업교육 과정을 만들 필요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창업교육을 시킬 교육자를 육성해야 한다. 창업교육의 특성 상, 실습과 체험형 학습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주 교재 뿐 아니라 부 교재와 워크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가 필요하다. 교육자의 확보를 위해 우선 현장에서 현재 창업 관련 과

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를 대상으로 TOT(training of trainers)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창업 및 창업교육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게 하고, 교수법과 툴(tool)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산업체 현장 경험 보유자나 창업 유경험자가 창업교육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별도 교육과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진로상담교사 등에게 창업 관련 연수와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학생들에게 취업 뿐 아니라 창업도 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세 번째로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창업을 전공하거나 창업 또는 산업의 현장경험을 보유한 교육자가 적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들을 포함한 표준화된 커리큘럼과 교재를 제공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커리큘럼과 교재는 창업자에게 필요한 태도와 지식부터 시작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 역량까지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하며, 학생용 교재 뿐 아니라 교사용 교재도 함께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증거기반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창업교육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창업과 창업교육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가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영상이나 사례를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아이디어 발굴 - 검증 - 수정 - 사업계획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교육, 그리고 시작품 제작 등 실행까지 온오프라인이 연계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문화조성이다. 창업교육이 교실이나 모니터 앞에서, 혹은 실습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창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고, 여러 사례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미국에서조차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부모형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청년창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사업과 전담 기관을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창업지원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잠재적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발굴, 지원하여 창업자원의 패러다임을 바꿔왔으며, 이제는 제 2의 창업지원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열린 창업지원

사업 전개와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 청년창업센터 등 서울시가 보유한 시설을 민간에 공개해 운영을 맡길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벤처붐 시절을 대표했던 테헤란밸리에 D캠프, 마루180,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등 민간 엑셀러레이터와 투자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프라이머, 케이큐브벤처스 등 창업 선배들이 후배 창업자 양성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실시하고 있는 창업교육과 엑셀러레이팅, 인큐베이팅에 협력 또는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만하다. e창업스쿨을 통해 온라인 창업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을 연계하여 지역혁신과 창의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듯이 창업가들을 초청하여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을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하여 전파할 수도 있다. 서울시에 있는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매칭하여 창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창업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현장중심의 창업교육이 실현되도록 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 미래부, 교육부, 중기청(2013), '창업교육 5개년 계획'
- 한국경제연구원(2013) '기업가정신 창조경제 성공의 핵심조건'
- 관계부처(2013),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4), 창업교육센터 실태조사 및 창업 강좌 만족도 조사
- 한국연구재단(2013), 2013년 '대학산학협력백서'
- 인터넷 'What Happened to Silicon Values?'
(<http://www.theatlantic.com/technology/archive/2012/06/what-happened-to-silicon-values/258905>)

SEOUL ECONOMIC BULLETIN

생생리포트

생생리
포트

■ 현대인의 새로운 음식문화 '푸드트럭'

박희석 센터장(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장윤선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현대인의 새로운 음식문화, 푸드트럭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박희석 센터장 hspark@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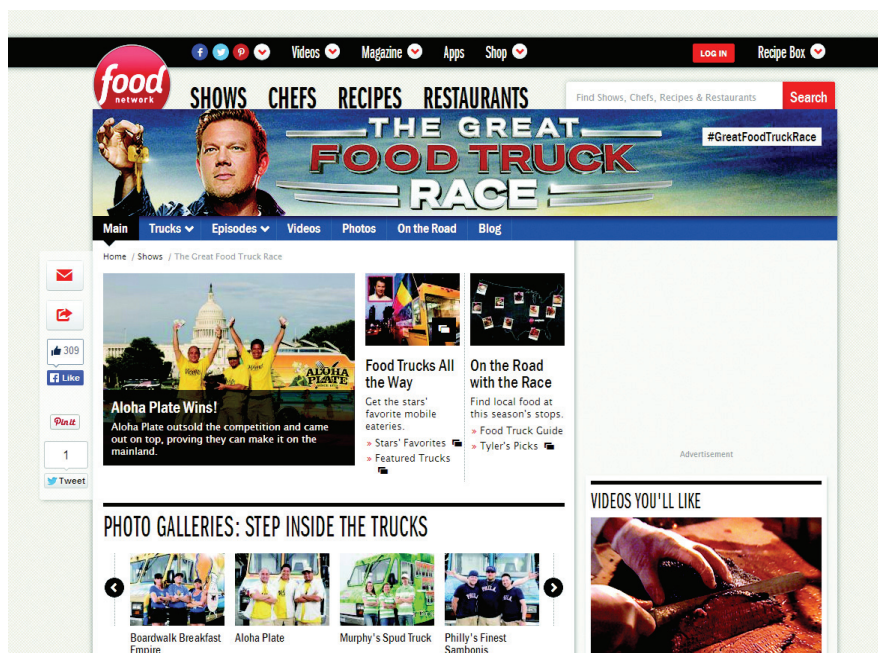
- I. 푸드트럭, 해외에서 인기를 끌다
- II. 서울 푸드트럭의 현장 이야기
 - 1. 푸드트럭이란?
 - 2. 하바네로, 달꽃크레페를 통한 푸드트럭 현주소
- III. 서울, 푸드트럭 그리고 창업

* 본 내용은 서울연구원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서울시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1. 푸드트럭, 해외에서 인기를 끌다

정부는 규제개혁 토론회를 통해서 올해 7월부터 푸드트럭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푸드트럭은 트럭 내외부를 개조하여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움직이는 레스토랑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리가 지정되어있는 노점상포장마차와는 달리 차량 내에 모든 조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장소로 이동이 가능하다.

아직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푸드트럭은 이미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국을 돌며 이동식 레스토랑끼리 경쟁하는 'The Great Food Truck Race(더 그레이트 푸드트럭 레이스)'와 'Eat Street(잇 푸드 트럭)'이라는 TV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 인기를 실감 할 수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위생검사도 꾸준히 받고 세금도 내는 합법적인 이동식당이다.¹⁾



[그림1] 더 그레이트 푸드트럭 레이스

자료: Food Network 공식 웹사이트

<http://www.foodnetwork.com/shows/the-great-food-truck-race.html>

1) "푸드트럭" <한국경제>, 2014.3.24자



[그림2] 잇 푸드트럭

자료: Cooking Chanel 공식 웹사이트
<http://www.cookingchanneltv.com/shows/eat-street.html>

외국에서 푸드트럭이 인기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인근 레스토랑들보다 독특한 음식을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고, 오래 기다리지 않으며,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푸드트럭의 역사와 서울의 푸드트럭 현장 인터뷰를 통한 푸드트럭의 현황을 알아보고 향후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²⁾

2) "[글로벌 경제 현장] 밥차, 뉴욕을 줄 세우다" <조선비즈>2013.12.04

II. 서울 푸드트럭의 현장 이야기

1. 푸드트럭이란?

푸드트럭의 원조는 1866년 미국 텍사스 목장 주인 ‘찰스 굿나잇’ 으로부터 시작된다. 카우보이들이 소떼를 몰고 나가면 들판에서 불을 피워 식사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굿나잇은 군용 마차에 부엌을 설치해서 카우보이들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커피를 끓여주었다. 이 ‘밥 마차’ 는 ‘Chuck Wagon(척 왜건)’ 이라고 불렸으며 미국인들은 이것을 첫 푸드트럭으로 꼽는다.³⁾

미국의 경우는 푸드트럭을 여러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음식의 조리 형태에 따라 냉동 음식, 포장음식, 직접 조리해서 파는 푸드트럭이 있다. 장소에 따라서는 카니발, 건설 현장, 스포츠 경기, 영화촬영지 등과 같은 이벤트가 열리는 장소 중심으로 다니는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대학 캠퍼스, 사무실 단지, 산업 단지 등)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⁴⁾



[그림3] Kogi BBQ 푸드트럭, Los Angeles, California

자료: 위키피디아

3) "[뉴스룸에서-태원준] 푸드트럭" <국민일보>, 2014.4.14자

4) 「Food Truck」. 『 위키피디아』. 2014.04.11 <http://en.wikipedia.org/wiki/Food_truck>

2. 하바네로, 달꽃크레페를 통한 푸드트럭 현주소

[하바네로]

전기남 대표

2009년부터 4년간 홍대에서 타코트럭을 운영하다 최근 매장을 열게 된 전기남 대표님을 통해 푸드트럭 경영에 관하여 들어보았다.



[그림5] 하바네로 푸드트럭 당시 모습

자료: Cookand



[그림6] 현재 하바네로 매장 모습

자료: 서울경제분석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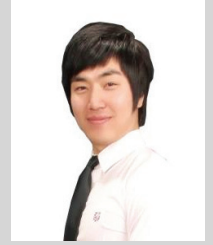
[그림6] 현재 하바네로 메뉴

자료: 서울경제분석센터

[달꽃크레페]

김대국 대표

2010년부터 3년간 홍대에서 주말에는 크레페 트럭을 운영하고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는 젊은 청년창업가 김대국 대표님을 통해 푸드트럭 경영에 관하여 들어보았다.



[그림7] 달꽃크레페 푸드트럭 모습

자료: 달꽃크레페 블로그



[그림8] 달꽃크레페 푸드트럭 모습
자료: 달꽃크레페 블로그



[그림9] 크레페 요리
자료: 레몬트리

Q1. 푸드트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 ▶ **전기남 대표:** 오랫동안 요식업계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한국 피자헛에서 일을 하다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간후 일본 음식점에서 스시 셰프로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서 멕시코 음식이 인기가 많은 것을 보고 멕시코 음식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남들과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아직 한국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멕시코 레스토랑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가게를 차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자금사정으로 창업비용이 적게 드는 푸드트럭부터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 **김대국 대표:** 처음부터 푸드트럭을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크레페라는 아이템에 관심이 생겨서 크레페 음식점 창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이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본에서는 크레페 푸드트럭이 많이있고 인기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푸드트럭 창업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중고차를 구입하여 크레페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2. 푸드트럭 메뉴 선정은 어떻게 했나요?

- ▶ **전기남 대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멕시코 음식점을 창업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메뉴는 여러 가지 타코와 브리또를 팔았습니다. 푸드트럭을 운영 할 때는 5가지 메뉴를 팔았습니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입맛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것은 이번에 가게를 열면서 메인메뉴를 선정하고 새로운 메뉴들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 **김대국 대표:**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처음부터 크레페 음식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Q3. 푸드트럭 위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전기남 대표:** 처음에는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위치에 있어야 손님들도 찾아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직 타코가 생소한 멕시코 음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음식을 즐기고 도전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젊은 연령대가 많은 흥대를 선택하여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 ▶ **김대국 대표:** 처음에는 여의도 벚꽃축제도 가보고, 목동 로테오거리, 여의도에 회사가 모여있는 거리.. 기타 등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의 경우는 회사원들이 많기 때문에 커피 푸드트럭은 장사가 잘 되었지만 크레페에는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레페를 좋아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은 흥대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Q4. 푸드트럭 사업 진행 중에 겪었던 힘든 일은 무엇인가요?

- ▶ **전기남 대표:** 힘든 점은 수 없이 많습니다. 일단 단속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단속에 걸리면 10만원이 넘는 벌금 때문에 꿈을 향한 의욕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가 많이 오거나 반대로 너무 더운 날은 손님이 줄어 매출도 적을뿐더러, 트럭 안에서 홀로 추위와 더위를 견디는 것도 어렵습니다. 가장 크게 힘들었던 점은 외로움입니다. 혼자 장사하는 것에 대한 외로움과 불법이라는 점 때문에 항상 불안했습니다.
- ▶ **김대국 대표:** 저에게 가장 힘든 점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큰 꿈을 가지고 푸드트럭 사업을 시작했는데, 푸드트럭에 대한 이미지로 인한 사람들의 무시가 목표를 향한 저의 열정을 자주 좌절시

키고는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방해요소들 때문에 힘이 듭니다. 정부의 단속에 대한 어려움 뿐 아니라 기존에 주위에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의 방해가 큼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 연합회나 근처 가게 주인들이 장사를 못하게 텃새를 부립니다.

Q5. 푸드트럭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 **전기남 대표:**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접근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4년간 쌓은 노하우로는 지정된 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매출 인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김대국 대표:** 가게 월세나 권리금을 낼 필요가 없고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비용이 적어서 음식점을 열기 전에 연습 삼아 장사를 시작해볼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Q6. 푸드트럭 창업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 ▶ **전기남 대표:** 푸드트럭을 창업하는 비용은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중고 트럭을 사서 안에 조리에 필요한 기계들을 설치하였으며 도 멕시코의 느낌이 나도록 개조하였습니다.
- ▶ **김대국 대표:** 초기 창업비용은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중고차 구입비가 400만원 정도 했고, 나머지 돈은 차 수리비, 보험료, 내관과 외관 인테리어 그리고 재료비가 들었습니다.

Q7. 푸드트럭에서 가게로 옮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기남 대표만 해당)

- ▶ **전기남 대표:** 매장은 월세를 내는 단점이 있지만 정해진 한 장소에서 불법이라는 불안감 없이 운영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가게로 옮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처음부터 목표가 멕시코 음식점을 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Q8. 푸드트럭을 통한 최종목표는 무엇인가요?

(김대국 대표만 해당)

- ▶ **김대국 대표:** 저의 꿈과 목표는 처음부터 확실했습니다. 생계형 크레페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푸드트럭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 자리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 가게를 통해서 크레페 프렌차이즈를 확장 시킬 계획입니다.

Q9. 푸드트럭을 창업하고자하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 ▶ **전기남 대표:** 막연하게 창업비용이 적게 든다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렵고 힘든 점이 많기 때문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철저한 자신만의 맛의 노하우 또한 끊이지 않는 손님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 ▶ **김대국 대표:** 초기에 자본이 없는 청년들이 푸드트럭을 시작으로 사업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투자비용으로 여러 가지 메뉴도 시도해볼 수 있고 원하는 방향을 연습을 통해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 계획 없이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저는 확실

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푸드트럭 사업을 시작하기 1년 전부터 아이템을 구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목표와 꿈이 없다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III. 서울, 푸드트럭 그리고 창업

서울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두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두 대표는 동일하게 푸드트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자금이 부족하여 창업비용이 적은 푸드트럭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푸드트럭 사업을 한다고 먼저 결정하고 메뉴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 아이টে에 대한 확실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창업을 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창업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점도 생각보다 많았다. 정부의 규제를 포함해서 본인과의 싸움이었으며 주위 환경도 쉽게 도와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 대표 두 분은 목표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 토론회를 통해서 올해 7월부터 푸드트럭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규정은 유원지에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에만 해당하며 여전히 도로에서는 불법이다. 도심속에서 푸드트럭을 합법화하는 것은 입점 되어있는 점포상인들이나 노점상들 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 기회를 주는 푸드트럭은 아이디어가 많은 젊은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푸드트럭은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 관광자산으로 정착 될 수도 있다.

서울시는 현재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도전하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 유원지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특화 지역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중앙 정부와 서울시는 도심 속에 이미 자리잡고 있는 노점상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푸드트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SEOUL ECONOMIC BULLETIN

인포그래픽스

인포그래픽스

■ 보증기관을 통한 자금 대출 시 소기업 · 소상공인의 이자율은?

박희석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센터장)
장윤선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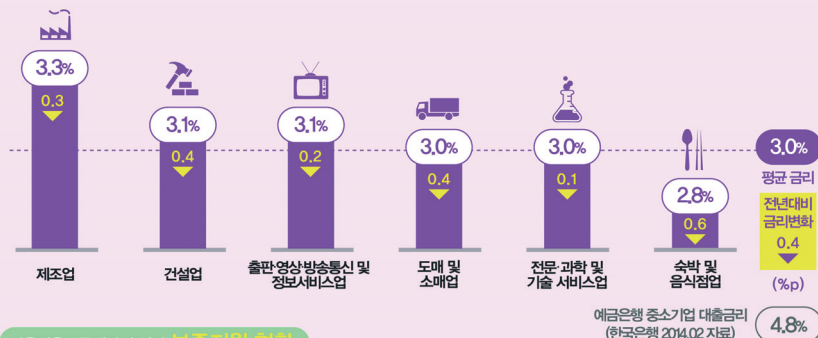
보증기관을 통한 자금 대출 시 소기업·소상공인의 이자율은?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박희석 센터장 hspark@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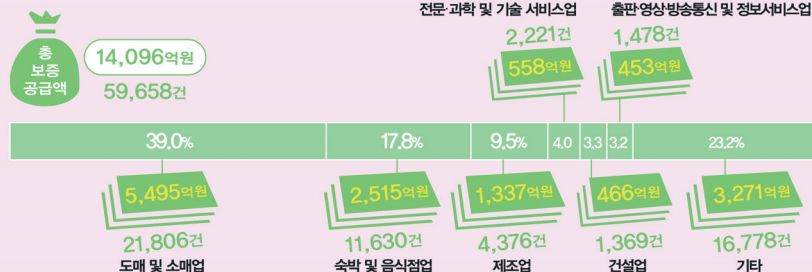
보증기관을 통한 자금 대출 시 소기업·소상공인의 이자율은?

전 업종 평균 대출 이자율은 3.0%이며, 예금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1.8%p 낮은 연간 보증공급액은 14,096억원이며, 59,658건을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한 자금 대출 시 **이자율**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연간 **보증지원 현황**



전 업종 평균 대출 이자율은 3.0%이며, 예금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1.8%p 낮음 연간 보증공급액은 14,096억원이며, 59,658건을 지원

■ 최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한 자금 대출 시 소기업·소상공인 이자율은 평균 3.0%이며, 예금은행 대출금리 4.8%보다 1.8%p 낮음

- 2014년 소기업·소상공인의 평균 부담 이자율은 3.0%이며 2013년도 3.4%보다 0.4%p 낮음
- 2014년 업종별 이자율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3년도 가장 높은 이자율 차지
- '숙박 및 음식점업'이 2.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3.4%로 업종 중 가장 큰 이자율 변화

■ 총 보증공급액은 14,096억원, 총 보증건수는 59,658건이며 '도매 및 소매업'이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도매 및 소매업'은 5,495억원으로 전체 보증공급액의 39.0%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17.8%, '제조업' 9.5% 순
- 보증건수 역시 '도매 및 소매업'이 21,806건으로 가장 압도적이며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11,630건, '제조업' 1,337건 순
- 건당 보증공급액의 경우 '건설업'이 34.1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0.7백만원, '제조업' 30.6백만원 순

〈표 1〉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시 업종별 부담 이자율 1)

(단위: %)

업종	2013년		2014년	
	기업수(개)	평균	기업수(개)	평균
전체	1,000	3.4	1,200	3.0
제조업	154	3.6	153	3.3
건설업	46	3.5	70	3.1
도소매업	430	3.4	359	3.0
숙박 및 음식점업	177	3.4	171	2.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3	3.3	65	3.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2	3.1	70	3.0
기타 ²⁾	118	3.4	312	3.0

자료 : 서울연구원·서울신용보증재단 (2014년 1/4분기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

- 1)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의 부가 조사로 1200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2013년 1000개)로 금리수준에 대한 '체감도 또는 심리'를 가늠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자율과는 상이할수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 1.0%는 제외한 업종별 평균 이자율
-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표 2〉 201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현황 3)

(단위: 백만원)

업종	보증공급액		건수(건)	건당 금액
	금액	비율		
도소매업	549,452	39.0%	21,806	25.2
숙박 및 음식점업	251,525	17.8%	11,630	21.6
제조업	133,740	9.5%	4,376	30.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5,770	4.0%	2,221	25.1
건설업	46,647	3.3%	1,369	34.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5,342	3.2%	1,478	30.7
기타 ⁴⁾	327,102	23.2%	16,778	19.5
합계	1,409,578	100.0%	59,658	23.6

3) 201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내부 자료

4)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경제동향

■ 요약

■ 생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가 소비자물가/신선식품

곽지원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이소은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요 · 약 | 2월 서울의 경제동향

생 산

- 서울의 2월 제조업생산지수는 97.0으로 전년동월대비 9.4% 증가
- 2월 제조업 출하·재고 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4.2%, 10.3% 각각 증가하여 경기확장기

소 비

- 서울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8,264억원으로 전국(5조4,847억원)의 33.3%를 차지
- 2월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2.3%, 대형마트 판매액은 6.2% 감소

고 용

- 서울의 2월 취업자는 512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1천명(2.8%)이 증가
- 서울의 2월 고용률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1.6%p 증가, 실업률은 5.1%로 전년동월대비 0.5%p 증가

물 가

- 2014년 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2010년=100.0)로 전년동월대비 1.2% 상승

부 동 산

- 서울의 2월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강남지역(0.10%) 특히 은평구(0.26%)와 관악구(0.25%)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09% 상승
- 서울의 2월 주택전세가격은 강남지역(0.75%) 특히 동작구(1.34%)와 금천구(1.28%)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63% 상승

금 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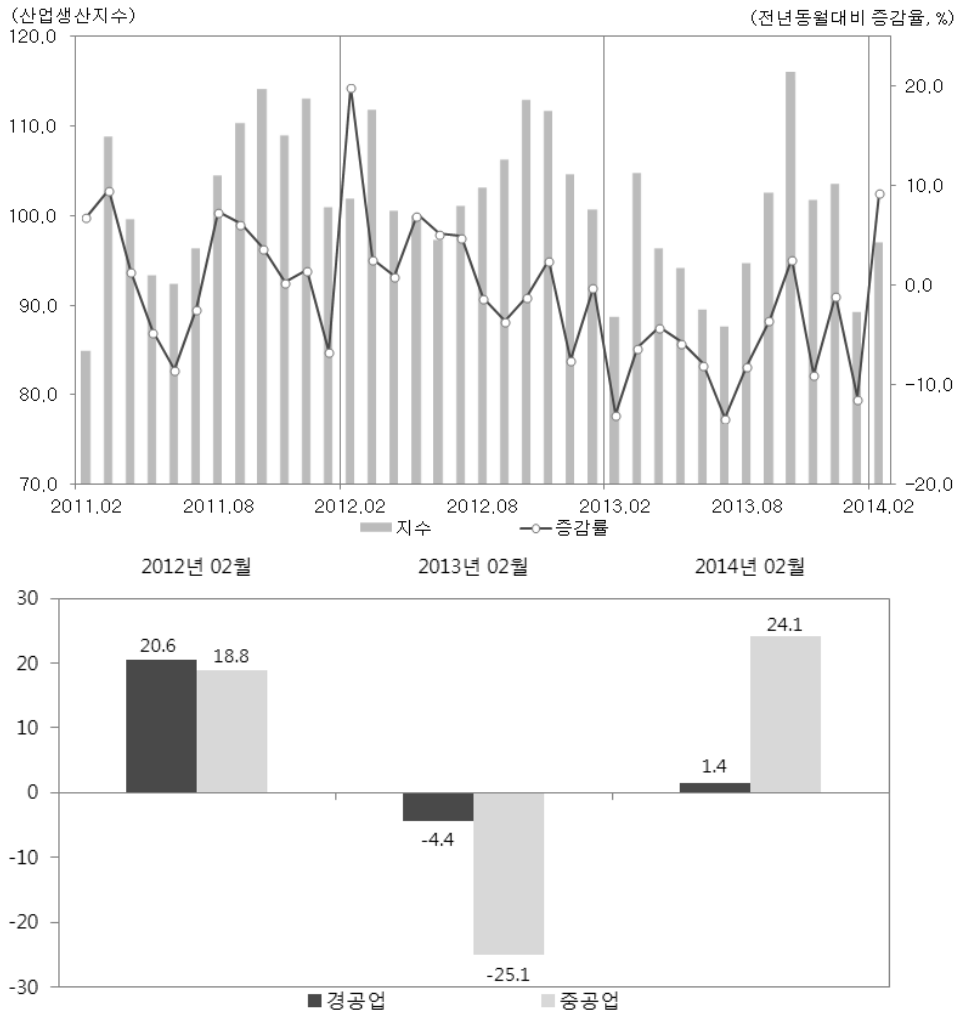
- 서울의 2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574조 8,004억 원으로 전월대비 0.3% 증가, 그 중 가계대출은 113조 9,396억 원으로 전월대비 2.5% 증가
- 서울의 2월 신설법인수는 2,208개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3% 감소
- 서울의 2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14.7% 증가

수 출 입

- 서울의 2월 수출은 47.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6.1% 증가, 품목별로는 자동차 부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서울의 2월 수입은 105.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1.5% 증가,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생 · 산 |

- 서울의 2014년 2월 제조업생산지수 97.0(201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9.4% 증가
 - 공업구조별로 중공업과 경공업 부문 각각 전년동월대비 24.1%, 1.4% 증가
 - 제조업 부문별로 전년동월대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49.3%), 의료정밀광학(39.3%), 가죽 및 신발(11.3%) 등 증가, 화학제품(-39.1%), 전기장비(-14.7%), 전기·가스·증기업(-9.8%) 등 각각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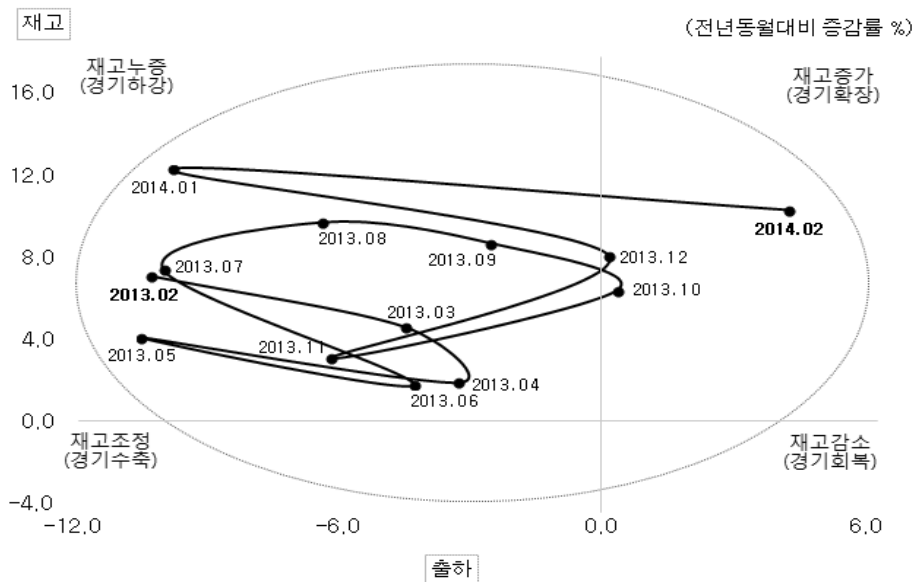
〈그림〉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

| 출하 · 재고 순환 |

- 서울의 2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재고 증가로 경기확장기
 - 서울의 2월 출하지수는 97.3(2010=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4.2% 증가
 - 서울의 2월 재고지수는 118.9(2010=100.0)로 전년동월대비 10.3% 증가
 - 출하, 재고 상승하여 경기확장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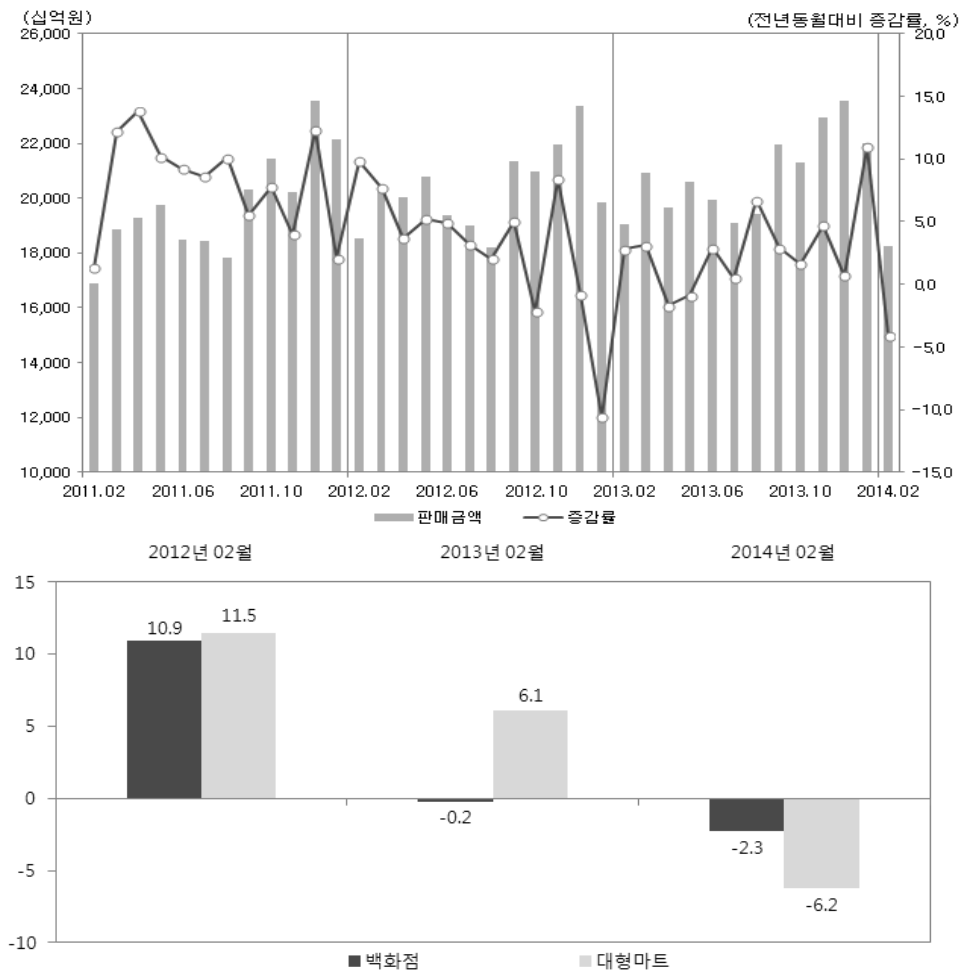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소 · 비 |

■ 서울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4.1% 감소

- 서울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8,264억원으로 전국(5조4,847억원)의 33.3%를 차지
- 백화점 판매액은 9,868억원으로 전국(2조2,014억원)의 44.8%, 대형마트 판매액은 8,396억원으로 전국(3조2,833억원)의 25.6%를 차지
- 서울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1.2으로 전년동월대비 6.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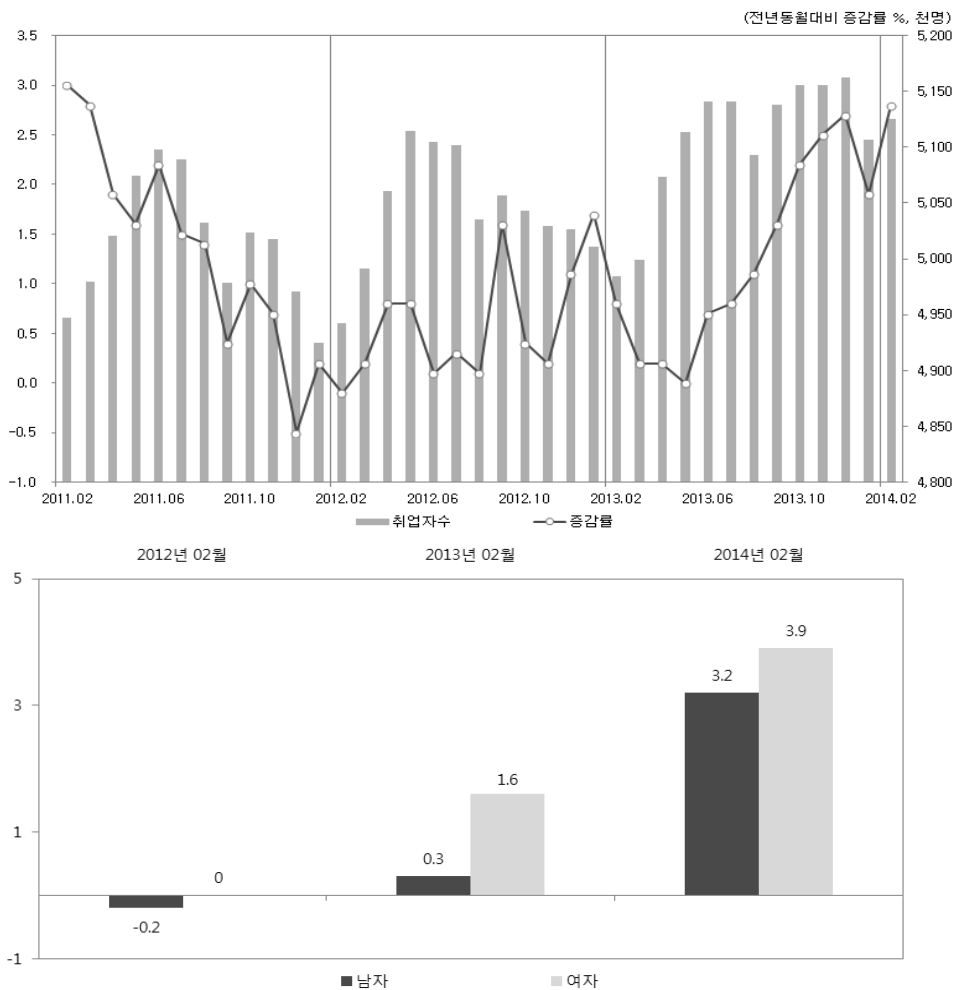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

| 취·업·자 |

■ 서울의 2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2.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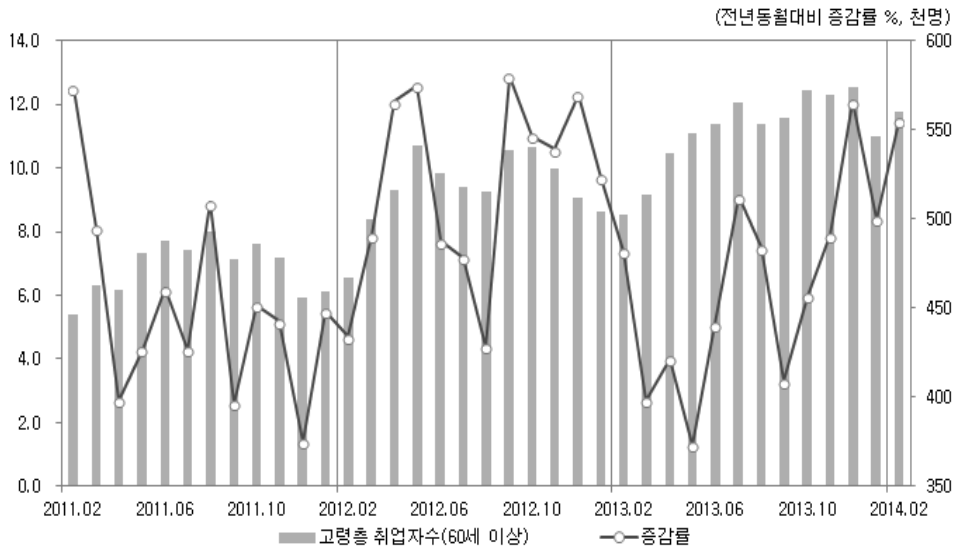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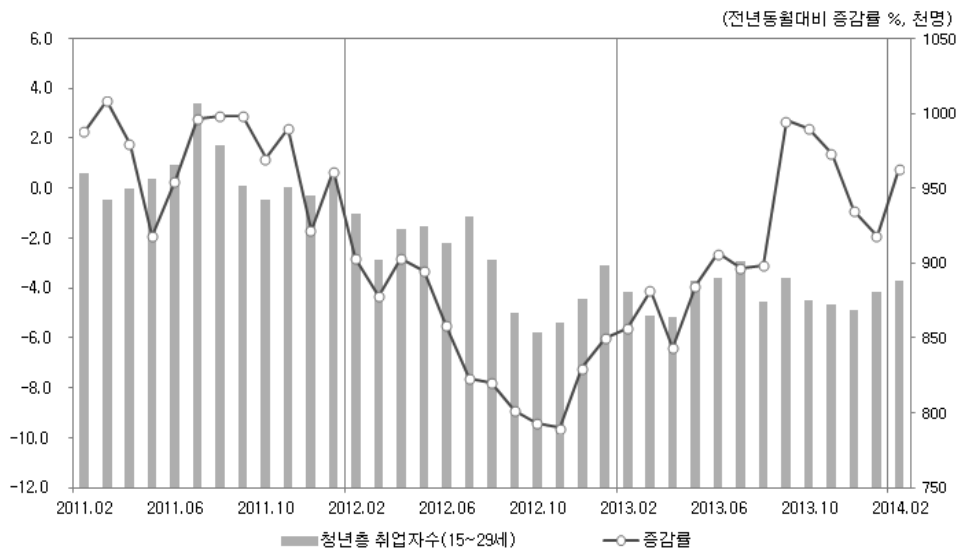
- 서울의 2월 취업자는 512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1천명(2.8%)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7만1천명, 여자는 225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7만3천명(2.6%), 여자는 6만8천명(3.1%) 각각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4만7천명(10.4%), 도소매·숙박·음식업이 10만3천명(7.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2만1천명(1.0%)이 각각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

- 서울의 2월 청년층(15세~29세)과 고령층(60세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감률은 플러스 증가세
 - 서울의 2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88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하여 상승세로 반전
 - 서울의 2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5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5%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
 - 청년층의 취업은 지난 4개월간 주춤하였으나 2월 들어 회복세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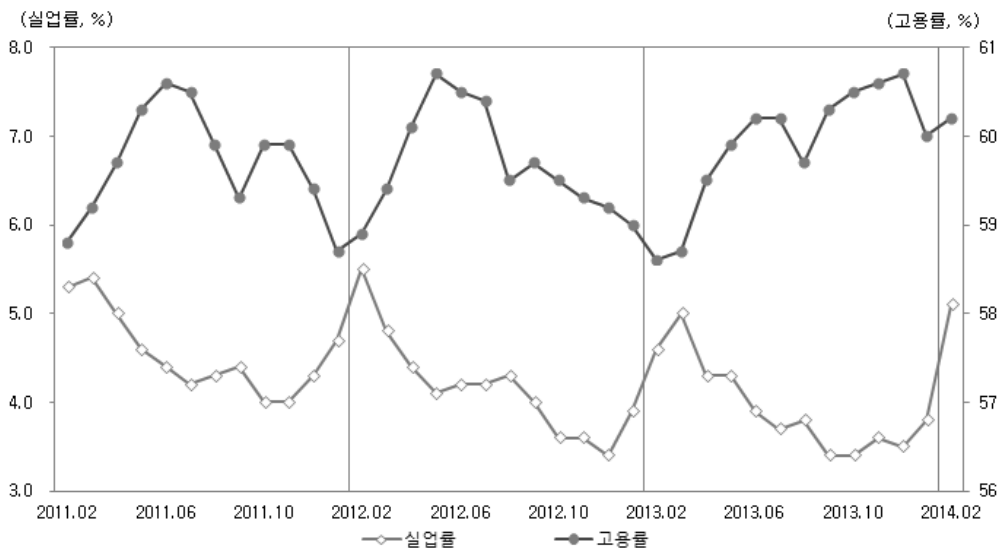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 서울의 2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2월 고용률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1.6%p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4%로 전년동월대비 2.1%p, 여자는 50.9%로 1.4%p 각각 증가
 - 2014년 2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58.6%)보다 1.6%p 높은 수준
- 서울의 2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동일,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2월 실업자는 27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5천명(14.5%)이 증가
 - 실업률은 5.1%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5.1%로 전년동월대비 0.2%p, 0.8%p 각각 상승
 - 2014년 2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4.5%)에 비하여 0.6%p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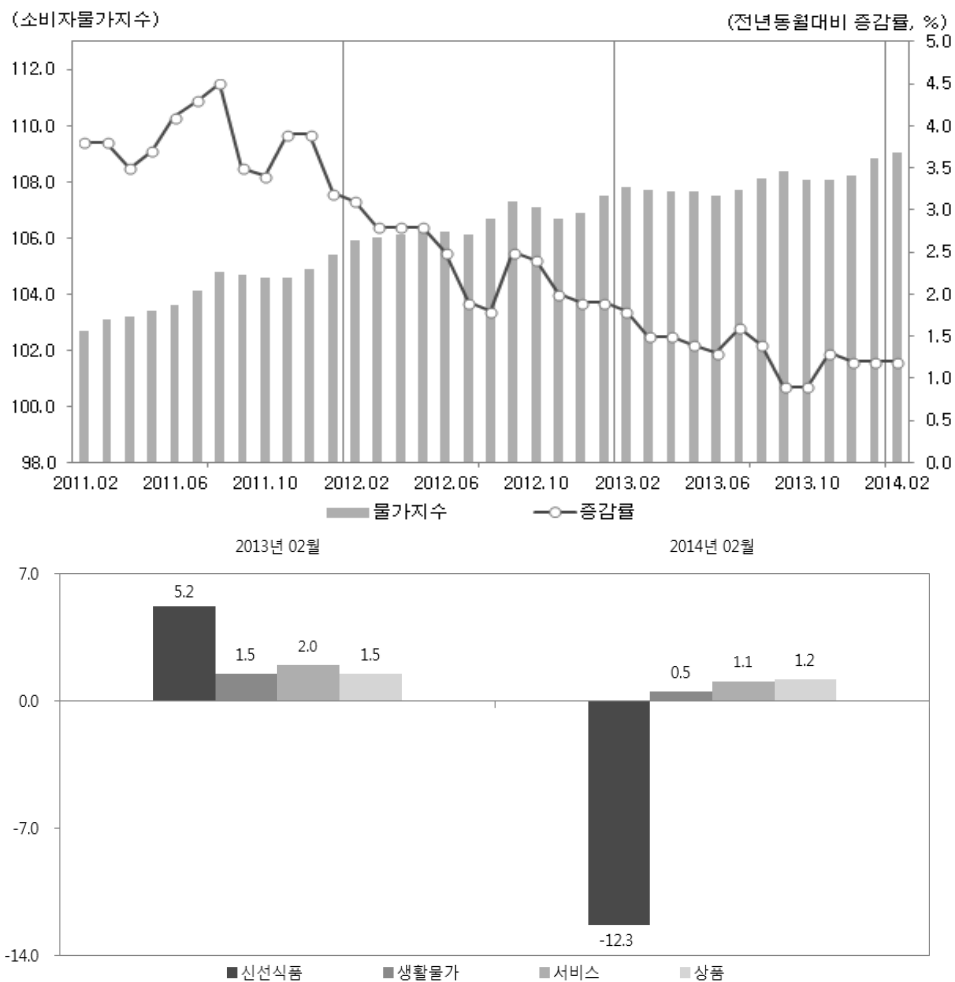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 · 가 |

■ 서울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2014년 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2010년=100.0)로 전년동월대비 1.2% 상승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2%), 교통(-0.8%), 오락 및 문화(-0.2%), 주류 및 담배와 통신(-0.1%)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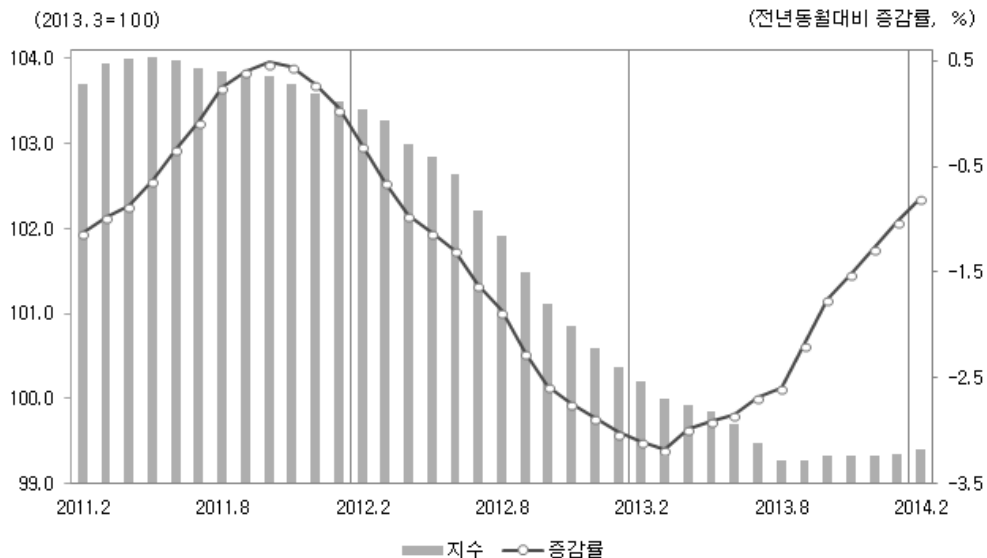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서울의 2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09% 상승
 - 강남지역(0.10%), 강북지역(0.08%)로 전월대비 상승
 - 상승률 상위지역: 은평구(0.26%), 관악구(0.25%), 도봉구(0.23%), 강남구(0.23%)
 - 아파트(0.13%), 연립주택(0.05%), 단독주택(0.03%)
- 전국의 2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16% 상승
 - 광역시(0.27%), 기타지방(0.22%), 수도권(0.09%) 모두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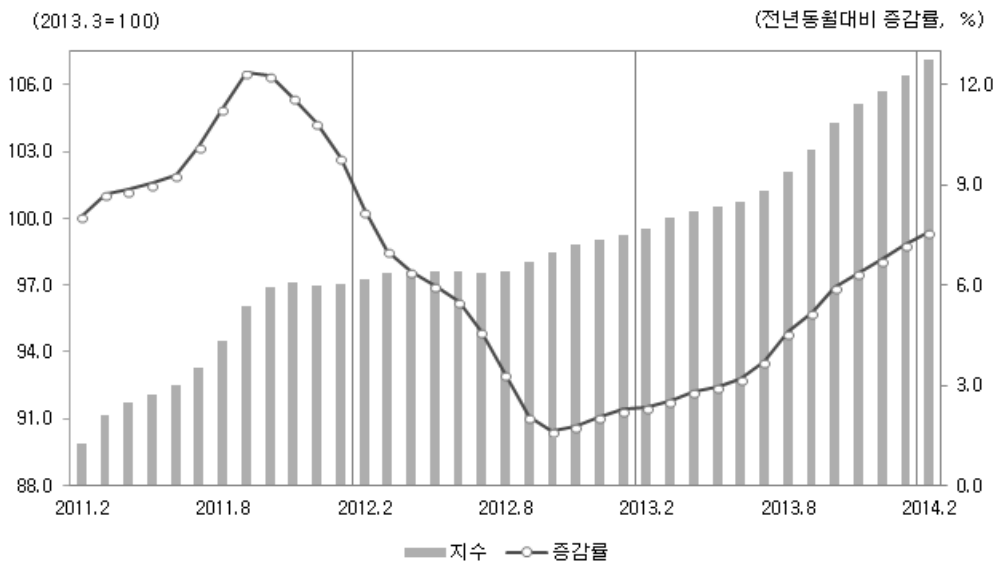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2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증가, 매매거래건수 전월대비 증가
 - 평당 매매가격(1,628만원)은 전월(1,623만원)대비 0.35% 증가
 - 매매거래건수(7,670건)는 전월(5,386건) 대비 42.4% 증가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서울의 2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63% 상승
 - 강남지역(0.75%), 강북지역(0.60%) 등 전 지역에서 전월대비 상승
 - 상승률 상위지역: 동작구(1.34%), 금천구(1.28%), 은평구(1.17%), 노원구(0.77%)
 - 아파트(0.80%), 연립주택(0.43), 단독주택(0.29%) 등 상승세 지속
- 전국의 2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48% 상승
 - 수도권(0.63%), 광역시(0.28%), 기타지방(0.30%) 모두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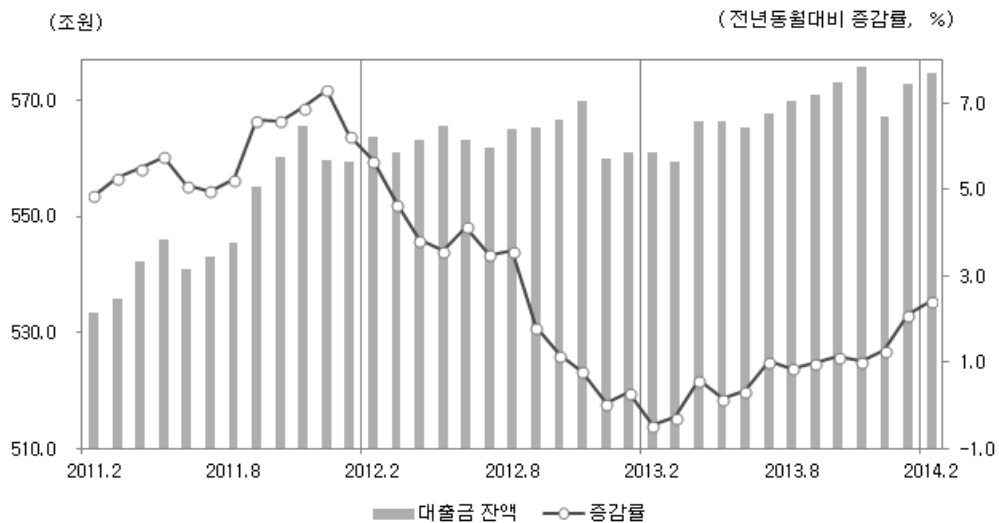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2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가, 전세거래건수 전월대비 증가
 - 평당 전세가격(평균 996만원)은 전월(980만원)대비 1.6% 증가
 - 전세거래건수(13,334건)는 전월(7,909건) 대비 68.6% 증가

| 가 · 계 · 대 · 출 |

- 2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574조 8,004억원)은 전월(572조 9,354억원)대비 0.3% 증가
 - 그 중 예금은행(470조 6,034억원)과 비예금은행(104조 1,970억원)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2% 증가, 4.7% 감소
- 2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1,530조 9,121억원)은 전월(1,523조 8,673억원)대비 0.4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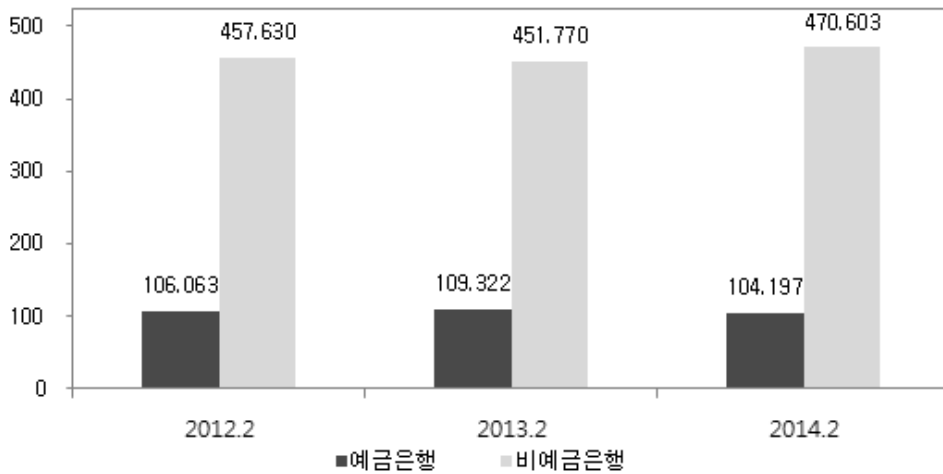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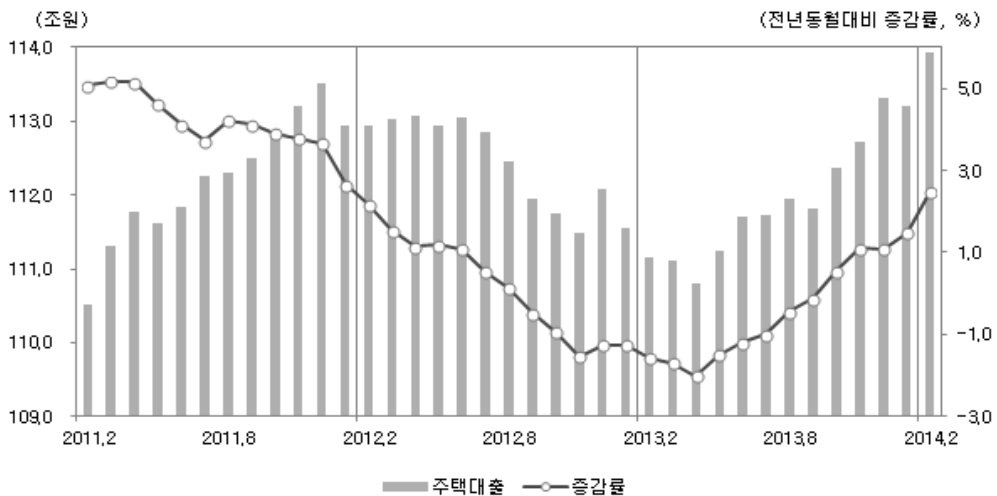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2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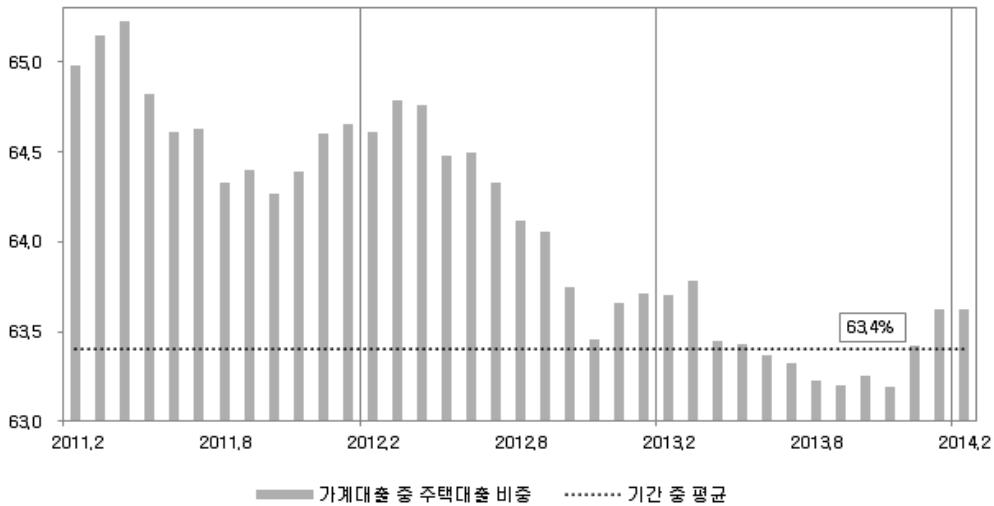
- 은행 가계대출(179조 937억원)은 전월(177조 9,131억원)대비 0.7% 증가
- 그 중 주택대출(113조 9,396억원)은 전년동월대비 2.5% 증가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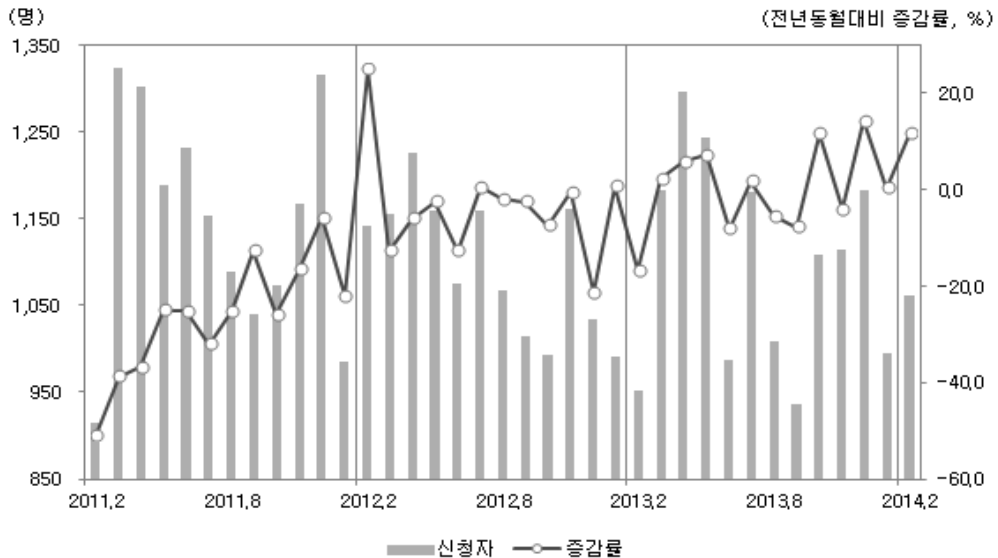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 2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증가

- 개인파산 신청자(1,062명)은 전월대비 6.7% 증가,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0.3%)은 전년동월대비 70.0%p 감소, 면책 기각률(3.3%)은 전년동월대비 36.8%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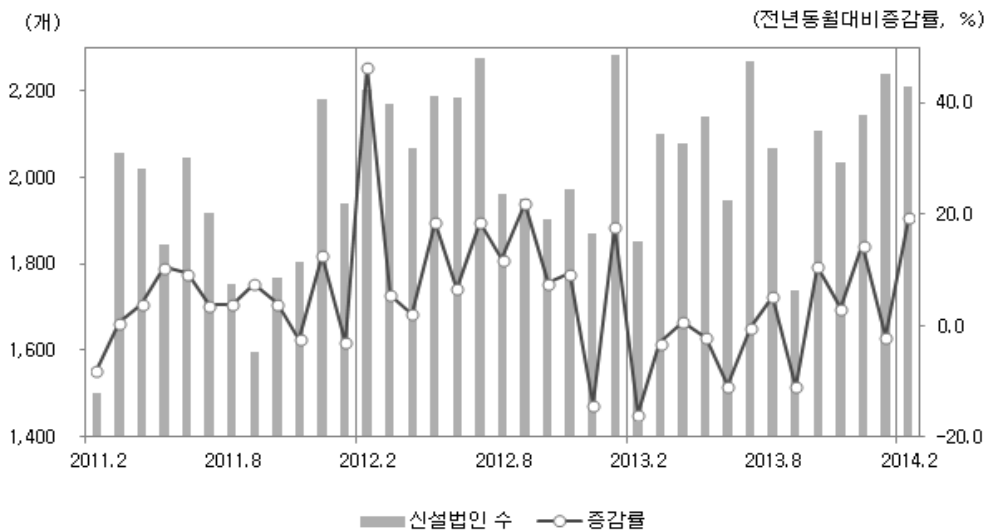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 신 · 설 · 및 · 부 · 도 · 법 · 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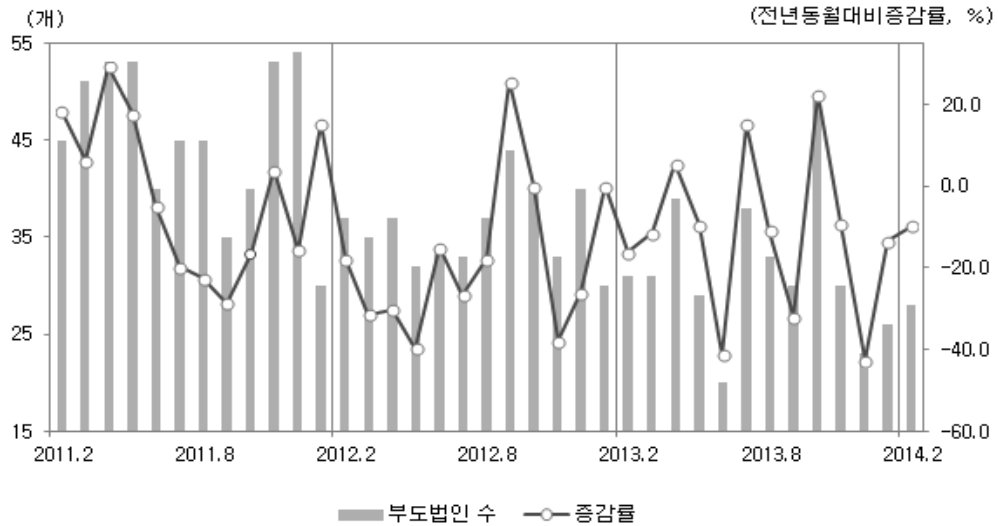
- 서울의 2월 신설법인 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208개로 전월대비 1.3%(30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19.4%(358개)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각각 15.0%(50개), 11.4%(17개) 감소,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2.1%(36개) 증가

- 서울의 2월 부도업체 수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28개로 전월대비 7.7%(2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9.7%(3개) 감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월대비 83.3%(5개) 증가, 건설 및 설비업과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각각 28.6%(2개), 15.4%(2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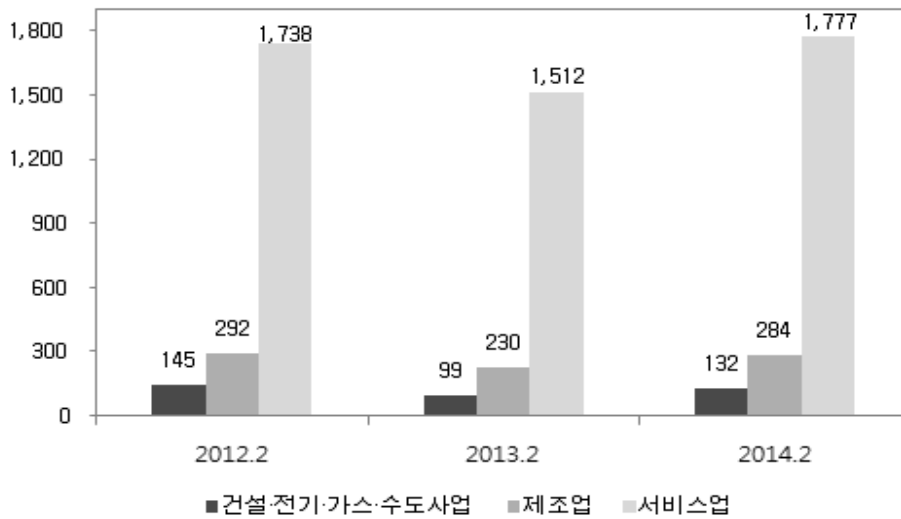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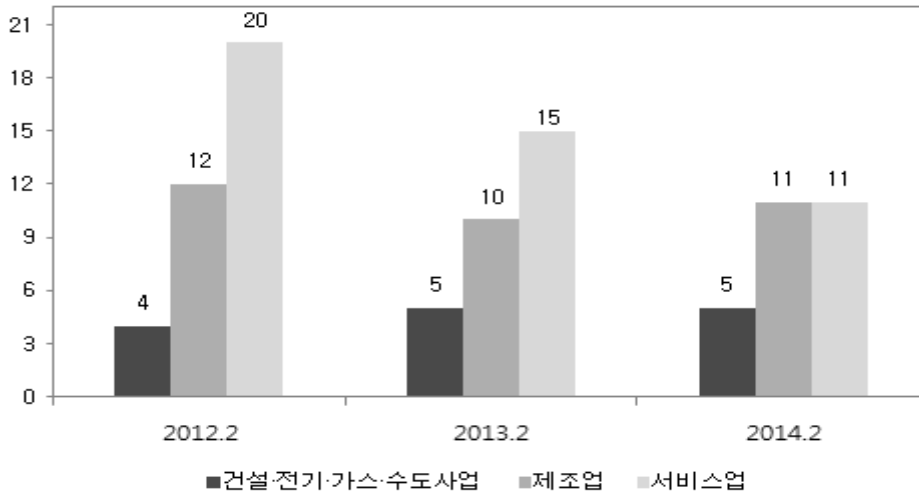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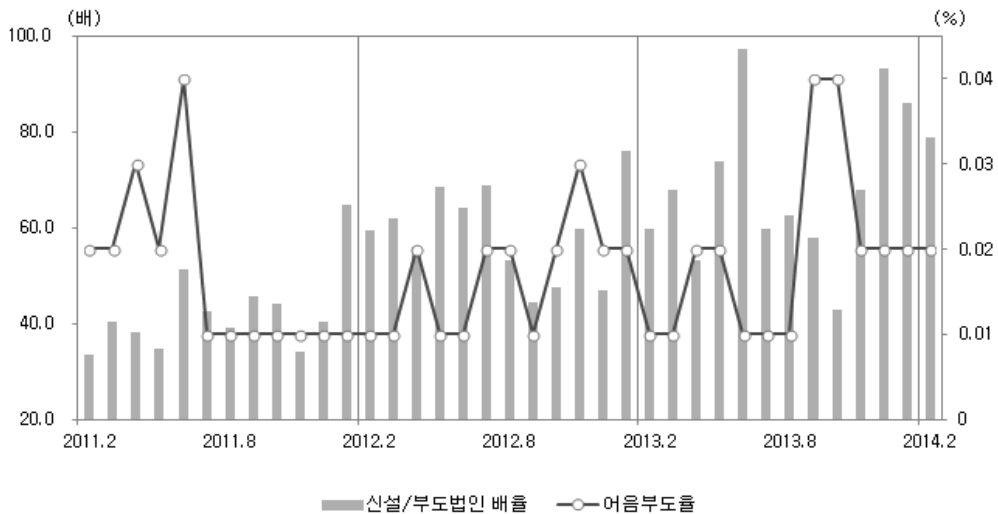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2월 중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78.9배로 전월 (86.1배)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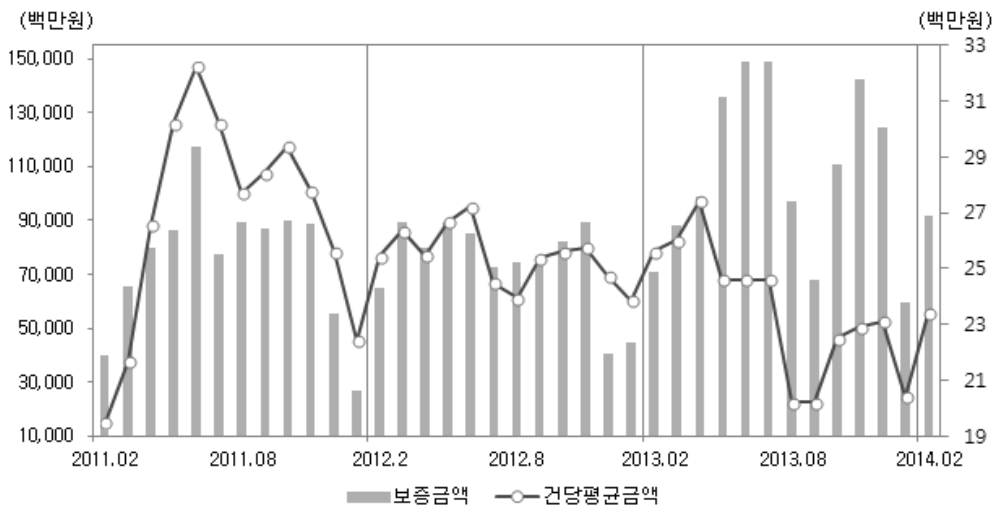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 서울의 2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91,429백만원, 3,907건
-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전월대비 각각 53.2%, 33.3% 증가,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14.7% 증가
-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각각 29.0%, 40.9%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8.6%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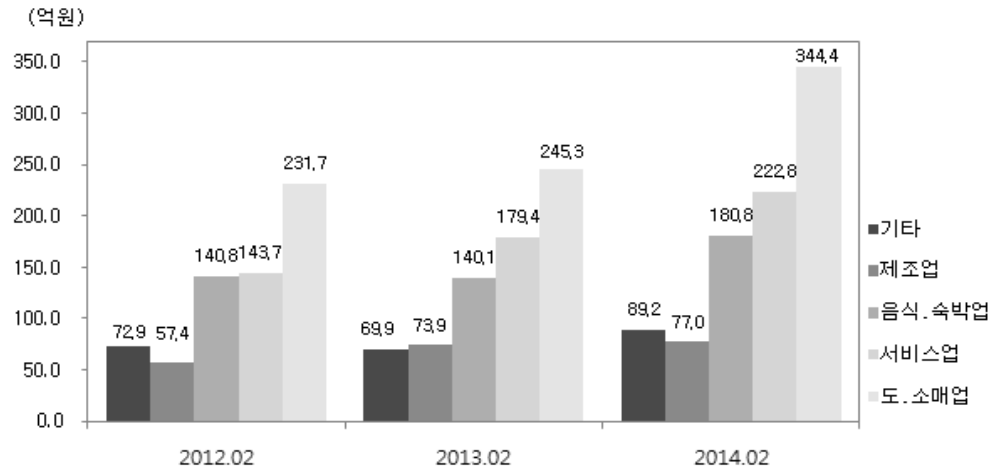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서울의 2월 제조업종 보증지원 비중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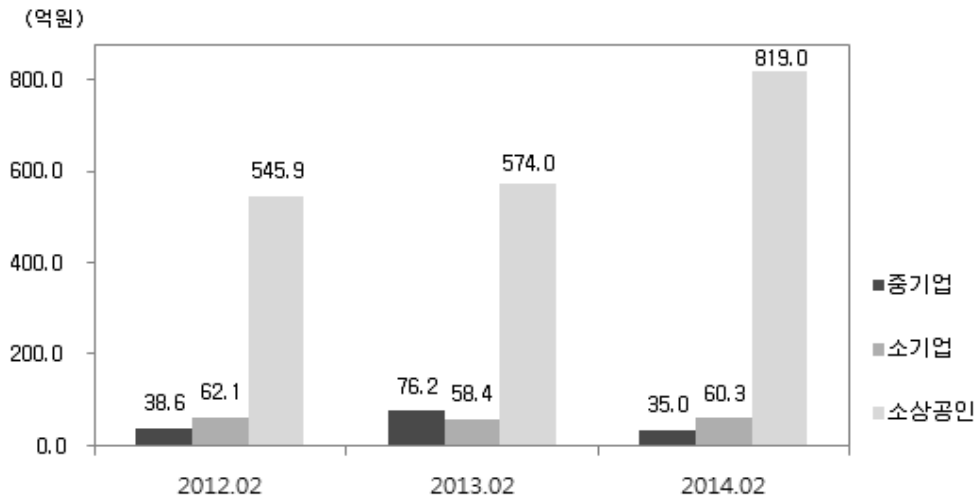
- 2월 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8.4%로 전월(7.9%) 대비 0.5%p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종에 대한 지원 비중은 37.7%로 전월(35.9%) 대비 1.8%p 증가
-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6.8%로 전월(7.0%)대비 0.2%p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업종은 34.7%로 전월(34.1%)대비 0.6%p 증가

■ 서울의 2월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감소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9.6%로 전월대비 0.2%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96.2%로 전월대비 1.3%p 증가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6.6%로 전월대비 0.5%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2.3%로 전월대비 0.2%p 감소
-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3.8%로 전월대비 0.3%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1.5%로 전월대비 1.1%p 감소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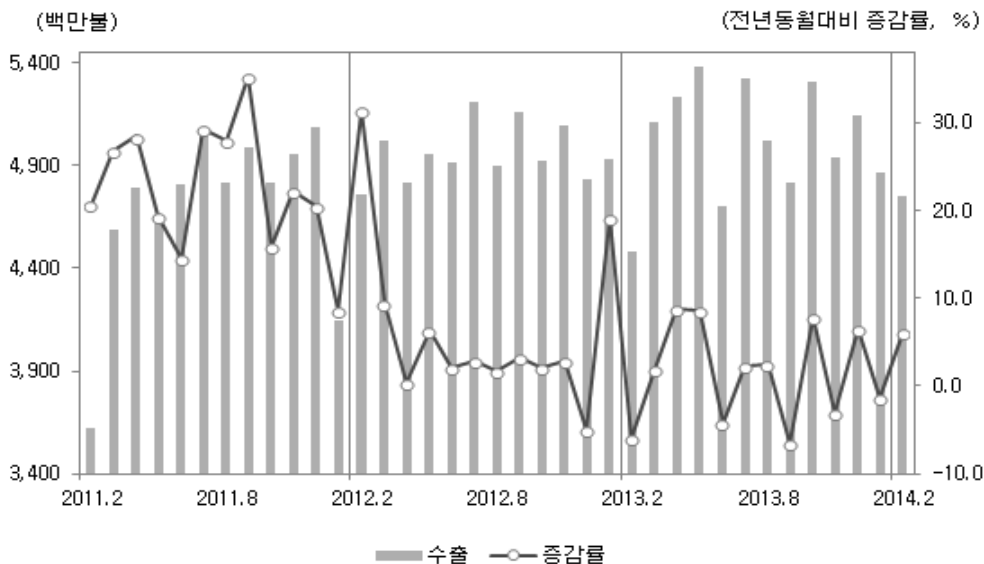
| 수 · 출 · 입 |

■ 서울의 2월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47.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6.1% 증가하였고 수입은 105.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5.5% 증가
- 전국의 수출은 429.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하였고 수입은 420.4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4.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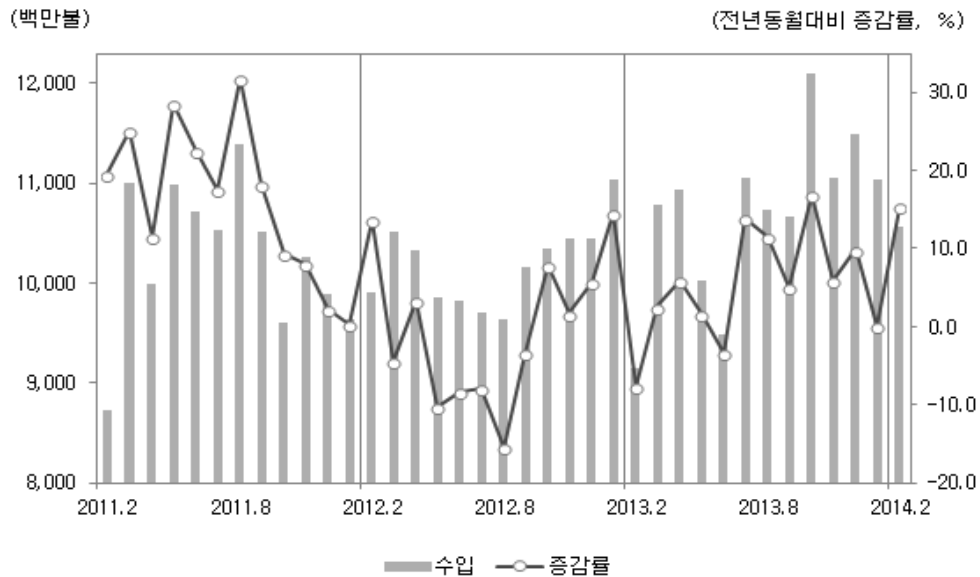
■ 서울의 2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 부품,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자동차 부품이 446백만 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합성수지, 반도체, 고무제품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1,028백만 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의류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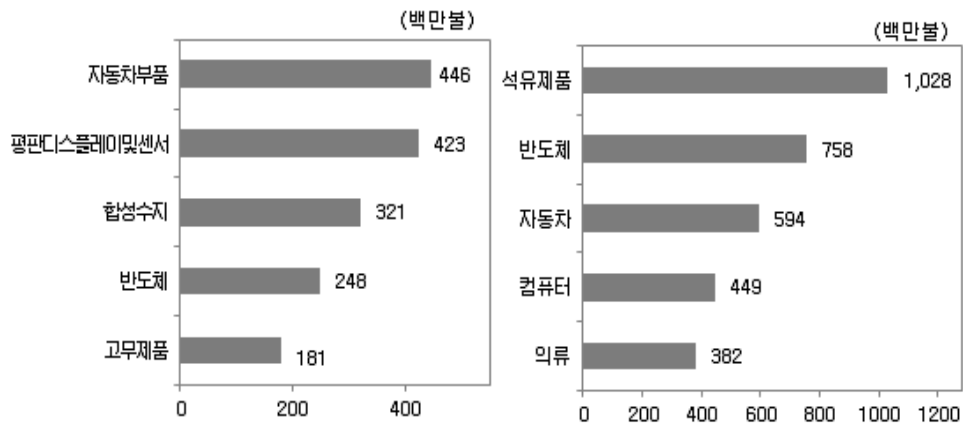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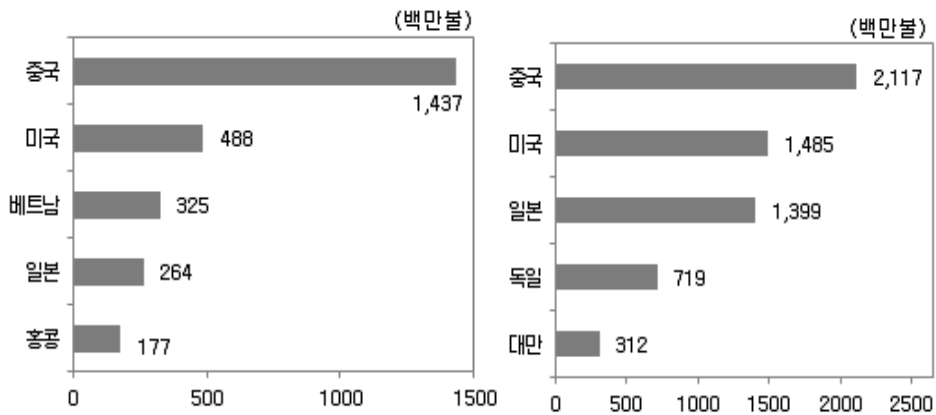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2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2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2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3.4% 증가한 1,437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3.2% 증가한 2,117백만불을 기록 하였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순



자료 : 무역협회

〈그림〉 2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2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 자 · 료 · 출 · 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4년 2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4년 2월 서울시 고용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4년 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garak.co.kr/youtong>」
 관세청, 「2014년 2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
 국민은행연구소, 「2014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114, 「2014년 2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중소기업청, 「2014년 2월 중 신설법인 동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
 통계청, 「2014년 2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2014년 2월 고용동향」
 통계청, 「201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한국은행, 「2014년 2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한국은행, 「2014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